

국고보조금 가로챈 농민 무더기 검거

허위 작성 서류 행정기관 제출 62억원 '꿀꺽'

입실균형 등 자치단체 10곳을 상대로 이종장부를 만들어 국고보조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원예시설업자와 농민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허위 서류를 작성해 원예단지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시설업체 대표 정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정씨의 공모해 보조금을 부풀려 타낸 김모(49)씨 등 시설업자 20명과 백모(76)씨 등 농민 60여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전주와 입실 등 전국 10곳의 지

자체 원예농가에서 '원예전문단지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총 207회에 걸쳐 국고보조금 62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정부가 수출 원예 전문단지 중·개축 비용의 절반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는 점을 악용, 공사비를 부풀려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남은 잔액을 착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는 자재비 원가를 부풀려 책정하고 실제 공사에는 질이 떨어지는 자재를 사용하고 공사에 투입된 인부

수를 늘는 등 거짓 서류를 작성해 국고보조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정씨 등 시설업자들은 원예농민들에게 접근해 "돈 한푼 안 들이고 시설을 새로 지어주겠다"며 범행을 가담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이들은 원예시설비의 절반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는데도 시설비 전액을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잔액은 착복해 부당이득을 거뒀다. 경찰은 지난 2014년 2월 원예단지에서 농민과 시설업자들이 국고보조금을 편취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자체 사업서류와 보조금이 지급된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전북경찰청 김현익 광역수사대장은 "이 사건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의 허점을 노려 시설업자와 농민들이 공모해 이면 계약을 한 뒤, 허위 서류를 제출해 보조금을 부풀려 타낸 것"이라며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 회수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건을 통보하고, 이같은 범죄가 또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들은 법원 판정에 따라 추징금을 징수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과 제2항에 의거 3년 이상의 징역,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인진수기자

완산구, 시민들 곁으로 '바짝'

4개 대민사업 추진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최락휘)는 수동적 행정에서 벗어나 소통과 나눔의 시민 동반행정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완산구는 '꽃심 나눔이 전주사랑 한마위' 등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자체 사업을 추진, 대민업무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행정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 동반행정의 주요 사업내용은 '꽃심 나눔이, 전주사랑 한마위', '완산구 공무원자원봉사단' 운영, 청년 기부 나눔의 날 지정 및 비례 시민 완산화당' 개설 등 4개 사업이다.

완산구 직원 13명이 뜻을 합쳐 결성한 꽃심 나눔이에는 대금, 해금, 플룻, 트럼펫, 클라리넷, 기타, 하모니카 등에 재능이 있는 직원들이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을 준비,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순회하며 전주사랑과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워나갈 계획이다. 완산구 공무원 자원봉사단도 지역사회에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시민봉안 행정에 힘을 보태고 있다. 매월 20일은 공무원 봉급일이지만 완산구 직원들에게 '기부 나눔의 날'이 된다. 매달 직원들이 기부한 도서와 의류 등을 모아 관내 사회복지단체에 전달할 계획이다. /김영재기자



전주 용머리고개 육교 '역사속으로' 24일 오전 전주시 완산동 용머리고개 육교 철거현장에서 관계자들이 절린 육교 상판을 대형 크레인으로 옮기고 있다.

완산경찰서, 내일 민중총궐기 전북대회 행진차로 교통통제

완산경찰서는 오는 28일 전북투쟁본부가 민중총궐기 전북대회 행진차로 전 구간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완산경찰서는 전북투쟁본부가 세이브존에서 오거리를 거쳐 총경로 47, 풍남문광장까지 1.5km에 걸쳐 2개 차로를 사용해 600여명이 행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진차로는 통제하고 풍남문에서 세이브존 방향 도로는 정상소통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교통경찰 100여명을 배치해 교통관리를 실시하고 도로전광표지판을 이용해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인진수 기자

고창서 살인미수 피의자 검거

고창경찰서는 24일 밤 입대문제로 다투다 발 주인 부부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50)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16시 10분께 고창군 한 면소재지에서 발 입대문제로 갈등을 빚은 발주인 B(52)씨의 집을 찾아 B씨의 일과 B씨 남편의 어깨를 망치로 치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습격을 B씨 부부는 마을 주민들이 A씨의 폭행을 제지해 화를 피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의 발을 10년 동안 무상 경작하기로 계약했으나 B씨가 이를 위반해 자신이 농업직불금을 받지 못하게 돼 자 암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인진수기자

도내 봄꽃 4월 초 절정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져 봄꽃들이 하나 둘 지기개를 피고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다. 24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전북도는 개나리가 먼저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고 진달래는 오는 28일 벚꽃은 31일 전후로 개화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인진수 기자

기상지청은 또 31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으며 4월 장기에 비에 4월 4일부터 10일까지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다소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가족·연인·친구 등 봄꽃과 함께 추억을 남기고 싶은 사람이려면 31일 이후 첫 주말인 4월 2일과 3일을 놓치지 않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인진수 기자

“항공대대 이전 찬반투표로”

이전반대 대책위 촉구... 전주시 지원사업도 거부

전주 항공대대 이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전주시가 제안한 지역주민 지원사업을 거부하고, 찬반 주민투표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항공대대 도도동 이전반대 연합희생대책위원회는 24일 시청에 기자회견을 갖고 "항공대대 이전부지 주민들을 우롱하는 전주시의 지역주민 지원사업을 거부한다"며 "전주시가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항공대대 이전사업을 중단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항공대대 이전대상지인 도도동 주변지역에 230억원을 투입해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전주시의 제안은 지역민을 갈등을 부추겨 4월 '대다수 주민들은 섬심성 지원이 아니라, 이전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전주시가 항공대대 이전사업 강행을 위해 도도마을과 이전지 주변마을을 분리해 이전협의와 지원대책을 추진, 주민들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며 "주민설명회도 지역민들

의 의견 수렴에 대한 의지는 보이지 않고 형식적 설명회로 지역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전주항공대대 이전사업에 대한 주민투표 요구에 '이미 사업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주민투표는 검토대상이 아니다'는 전주시의 판단은 자의적 판단"이라며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주민투표의 청구시기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사업철차가 진행중이라도 지역주민들의 서명에 의한 청구가 가능하다"며 전주시에 대해 항공대대 이전사업 찬반 주민투표 수용을 촉구했다. 또한 "전주항공대대 이전사업은 오로지 예코시티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도도마을 주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되고 행정 편의와 추진계획에 따라 군사적편식으로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이전사업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주민투표를 통해 전주항공대대 이전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재기자

종중 재산 빼돌린 종중 전 대표 징역형

종중의 재산을 빼돌려 유용한 70대 종중 전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는 24일 종중이 보관중인 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기소된 모 종중 전 대표 A(74)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종중 대표로 종중 재산을 보관중이던 A씨는 지난 2010년 2월 전주의 한 은행에서 B씨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내준데 이어 2012년 4월

차용금 명목으로 C씨에게 2억원을 내주는 등 종중 명의 통장에서 2억8000만원을 출금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종중 소유의 토지가 사업부지로 선정됨에 따라 토지보상금으로 지급된 13억5000여만원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누우치고 종중 앞으로 2억원을 공탁했지만, 횡령 금액이 상크고 종중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용주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스피치 · 웅변 · 면접 · 리더십 · 시낭송

- ◎ CEO, 2%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귀하게 날개를 단다!
-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력(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 소통과 감성의 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김양욱 전담교수의 전문강사지도〉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 CEO 과정 담당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 (토론과 면접) 전담교수
- 한국웅변인협회 전북회장
- 전북최초 스피치마케팅 설치 강이자
- 한국스피치&리더쉽컨설팅 대표
- 스피치 리더쉽경력 40년 강사 및 스피치컨설팅리스트
- 저서: '365일스피치마케팅이벤트', '나를 세운 말, 말 말 스피치노하우' 등
- 방송: KBS 아침마당(3회), MBC 전라도사람들 JTV현장다시보기 등 방송출연

※ 과 목: ① 스피치기법과 리더십 ② 스피치최고지도사(고급)
③ 주말반: 토요일(매주 1회수업) ④ 면접반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익산캠퍼스)
서남대학교 평생교육원(남원, 순창, 장수)
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군산, 김제, 부안)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완주, 김제)
전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임실, 완주)
전북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정읍, 고창)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